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단행

시, 간선-일반-마을 버스 연결 노선체계 구축 내달 19일부터 본격 운행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도시 변화와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간선버스와 일반버스, 마을 버스로 연결되는 노선체계가 새로 구축될 예정이어서 정시성이 높아지고 환승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개편 노선도.

전주시는 다음 달 19일 전주-완주 시간제 확대와 간선버스 신설을 골자로 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노선개편은 지난해 6월 완주군 이서 방면에 적용된 전주-완주 시간제제가 소양 등으로 완주군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주요 도심과 간선도로를 10분 배차간격으로 연결하는 간선버스가 신설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주-완주 시간제 노선이 소양, 상관, 구이 방면으로까지 확대된다. 그간 완주 전 지역을 운행하며 비효율성을 야기했던 전주 시내버스가 소양면, 상관면, 구이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부터는 완주 마을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시내버스의 운행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막대한 시의 재정지원금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내부노선의 경우 도심 주요 축을 연결하는 10분 배차간격의 간선버스가 신설돼 간선버스-일반버스-마을 버스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구축된다.

간선버스는 통행량이 집중되는 주요

지역과 기린대로, 백제대로, 홍산로 등 간선도로를 10분 배차간격으로 달리게 된다. 10개 노선, 102대가 배치되는 간선버스는 빠른 이동과 정확한 배차간격이 장점이다. 시는 중간시간표를 도입해 정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병원과 학교, 전통시장 등 각 지역 생활권을 운행하는 일반버스는 총 78개 노선에 288대가 배치된다. 여기에 마을버스 '바로온'은 전주 외곽지역 등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운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평균 통행시간이 28

분에서 23분으로 5분 단축되는 동시에 환승대기시간도 12분에서 4분으로 8분 줄어들고, 환승 통행 수도 일 평균 1만1887건에서 8969건으로 2918건(24.5%) 감소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1에 가까울수록 직선에 가까운 노선임을 뜻하는 통행굴곡도도 3.79에서 1.45로 개선되는 것으로 봤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노선개편 알리미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노선개편 검색 웹페이지, 노선개편 설명회, 홍보물 배부,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선개편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기존의 노선개편이 행정과 전문가 위주로 진행돼왔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9년부터 버스업체와 노동자, 완주군 등 다양한 주체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왔다. 특히 5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버스노선 시민디자이너 원탁회의와 권역별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시켰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빅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과 수정 과정을 5차례나 거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최적의 노선개편안을 마련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용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알뜰카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질적인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와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단 확대 운영 △전 노선 중간시간표 도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등지원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완주 시간제제가 본격화되고 간선버스와 일반버스의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구축되는 이번 노선개편은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새롭게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선개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2021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서 전주지역 5개소 모두 최우수 등급 받아

전주지역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난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국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 모두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전국 400여 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평가가 이뤄진다.

지난 2019년 평가에서 전주지역 5곳의 시설이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은 가운데 이번 2021년 평가에서

도 5곳 모두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솔내야호청소년종합센터 △덕진야호청소년센터 △완산야호청소년센터 △전주야호청소년센터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등 전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안전 및 위생 분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계 활동 분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및 참여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성,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 대외협력 및 홍보의 활성화 등 평가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윤상 기자

탄소중립과 실천



전주시는 지난 11일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 2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탄소중립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 탄소중립 교육

전주시는 지난 11일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 2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탄소중립교육을 실시했다.

"탄소중립과 실천"을 주제로 열린 이 교육은 사회 전반에 탄소 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고은경 에코그린 환경교육연구소는 △환경문제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배경 및 방향 △미래를 위한 실천 방법 등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미경 전주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탄소 저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달았다"며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탄소 저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시, 부설주차장 공유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내달 25일까지 공공기관·학교 등 대상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접수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다.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하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지참해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또는 이메일(niceday930@korea.kr), 팩스(063-281-2618)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열리는 무료개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기관·시설과 2년간의 무료개방 협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전주시는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복지사업인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도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뒤 올해 정식사업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 원의 지원금이 8개월간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일반 장애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원금은 월 8만5000원, 지원기간은 10개월이다.

수강료를 지원받은 참여자는 올 연말까지 헬스, 볼링, 요가 등 10개 종목, 46개소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자를 우선 신청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